

“로봇이 처음 보는 물체도 정확히 인식”

GIST 이규빈 교수 연구팀, AI비전 기술 개발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AI융합학과 이규빈 교수 연구팀이 오류 추정을 통해 미학습 물체의 인식 결과를 정제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술은 실시간으로 오답지된 물체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로봇의 시각 인지 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AI비전 기술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한 모델은 사전에 학습된 물체만 인식할 수 있어 새로운 물체를 구별하는 능력

이 부족하다.

또 다른 모델은 사용자의 입력을 기반으로 인의 물체를 탐지할 수 있지만, 사람의 도움이 없을 경우 복잡한 환경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와 초기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류를 정정하는 기술이 개발돼 왔다. 하지만 기존 기술은 세부적인 부분만 수정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정정할 수 있어도 작동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오류 정정 기술을 적용한 ‘QuBER’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이미지와 초기 예측 데이터를 활용해 ‘4차 경계 오류’를 분석함으로써 물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을 통해 처음 보는 미학습 물체도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새 모델은 가려진 물체가 많아 인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분할 능력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이규빈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로봇이 처음 보는 물체도 정확하

고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 기술이 다양한 로봇 작업에 적용돼 새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로봇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교수가 지도하고 백승혁 박사가 박사과정 재학 중 수행한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로봇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인 IEEE 국제 로봇 자동화 학술대회(ICR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에서 5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서구 동천동 작은도서관, 문체부장관상 수상 지난 12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5 도서관의 날' 기념식에서 서구 동천동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운영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주 기자



광양 출신 김안호 작가 '마음의 꽃' 도서 250권 기증 광양시는 김안호 작가가 본인의 저서인 '마음의 꽃' 250권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작은도서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전국한우협회 순천시지부, 산불 피해 안동 한우농가에 손길 전국한우협회 순천시지부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의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조사료(건초)를 긴급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순천 주암면, 봄맞이 '마음 꽃심기' 행사 순천시 주암면은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마을 주민, 직능단체,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주요 명소의 광천교, 마을 공원 등에 봄꽃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전남도-우정청, 외국인 근로자·수출기업 지원 맞손

계절근로자·수출기업·다문화가족 국제우편 요금 감면 협약



전라남도는 14일 도청에서 전남지방우정청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원, 다문화가족 등의 고향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소량

수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우체국 국제특급우편 이용 시 우편요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남도와 우정청은 이용 대상자 확대,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이동정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이번 협약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과 수출기업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한 국제우편 서비스를 누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광양장도전수교육관 '장도, 두드려라' 운영

'장도, 두드려라' 운영

광양장도전수교육관은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2025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토요일 '장도, 두드려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은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유선청 주관 공모사업이다.

'장도, 두드려라' 프로그램은 국가무형문화유산 장도장과 함께 전통 장도의 가치를 지역민과 나누고 체험을 통해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전통 장도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아볼 수 있으며, 전통 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나만의 장도를 만들어보는 체험도 해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운영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광양읍에 있는 광양장도전수교육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0회 진행된다. 회당 20명을 정원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수시로 접수하며, 방문 또는 전화(061-762-4853)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일정 등은 교육관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양=조순익 기자

기아 오토랜드광주 '2025 기아챌린지' 후원금 전달식

콘서트·퓨처챌린지 등에 1억6천만원 후원...12년째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14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들의 문화예술재능 육성을 위한 '2025 기아챌린지'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아챌린지'는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2014년부터 12년째 후원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광주시교육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고 있다.

이날 후원금 전달 행사는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진행됐으며, 기아 오토랜드광주 문재웅 공장장이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정선 교육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변정근 본부장에게 후원금 1억 60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기아챌린지 사업은 기아챌린지 지콘서트, 퓨처챌린지, 초록빛디딤학교, 과학체험교실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바른 직업관 형성 및 첨단 과학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문화예술 컨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라며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후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전남소방본부장, 광양소방 격려 방문

최용철 본부장 “시민 안전 최우선, 선진화된 서비스 제공”



제19대 전남소방본부장으로 지난 3월 24일 취임한 최용철 본부장이 광양소방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지난 11일 광양소방서에서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 업무 등 운영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광양소방서 직할 중대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현장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활동시 직원 안전에 대한 당부 말씀을 전했다.

이후 광양제철소 POSCO홍보관으로 이동해 화재 예방 실재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용철 본부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선진화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익 기자

순천교육청, 교육장기 육상대회 성료

초·중학생 840여명 참가...기량·스포츠맨십 발휘



순천교육지원청은 이틀간 팔마중합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초등부와 중등부를 대상으로 '제28회 교육장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순천교육청 허동균 교육장, 이상대 순천시체육회장, 조평훈 순천시육상연맹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유망선수 발굴과 육상 선수층 저변 확대를

통해 오는 9월 열릴 제35회 교육장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 대비하고자 마련했다.

첫째날 관내 초등학교 35교에서 선발된 509명의 학생이 참가해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 출전했으며, 둘째날에는 중학교 18교에서 340명의 학생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총 840여 명의 학생들이 트랙, 필드, 도약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해 평소 갖고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학생과 함께 참여한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같이 뛰고 즐기는 동안 체력을 기르는 동시에, 존중과 배려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순천교육청 허동균 교육장은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기량을 펼치고 정정당한 스포츠 정신을 익힐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서부중등학생의회 의장단' 선출

의장 광주효광중 이경은...부의장 배서현·김현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학생의회실에서 관내 중학교 학생의원 66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서부중등학생의회 제1차 정기회 및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2025학년도 서부중등학생의회 제1차 정기회'는 학생의원들의 민주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회는 ▲의장단 선거 ▲학생 자치 역량 강화 연수 ▲권역별 협의체 구축 ▲학생의회 진행 방법 및 운영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의장단 선거에는 3명의 의원이 입후보해 1주일 전부터 민주인권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거운동을 전개했으며, 후보들의 소견 발표 이후 투표를 진행했다.

선거 결과, 이경은 후보(광주효광중 3학년)가 득표율 1위로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2-3위인 배서현 후보(송광중 3학년)·김현준 후보(효천중 3학년)가 부의장으로 뽑혔다. 임기는 1년이다.

학생의원들은 '학생 자치 역량 강화 연수'를 갖고 자치활동의 중요성과 역할,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과정 학습, 소통 및 갈등 해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조선주 기자